

조선시대 과학기술 보물창고 인정

이재 황윤석 53년 동안 쓴 친필 일기 '이재난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고창군은 이재 황윤석(1729~1791)의 친필 일기로서 문집의 초고본이자, 과학자의 연구노트인 '이재난고'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등록·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42건이 등록돼 있다. 올해 등록자료는 총 16건으로, 이 중 '이재난고'는 과학기술사 분야에 해당된다.

이재 황윤석은 조선 영·정조대 전라도 흥덕현(현 고창군 성내면)에서 출생하여 10세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53년 동안 '난고'라는 제목의 일기를 썼다.

500여만 자에 달하는 '이재난고'에는 수많은 과학기술 자료가 담겨있다. 그는 성리학자이자 실학자로 수학, 천문학, 지리학, 역사학, 언어학, 기술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 가운데 산학(算學), 천문학(天文學) 등은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되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다.

'이재난고'에는 조선의 온전, 제련법(製鍊法), 구리의 분류와 배합 비율의 변화, 광물과 광산, 식물의 명칭 연구, 의학이나 물산 등 방대한 자료가 기록돼 있으나 아직까지 정리와 연구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재는 다산 정약용보다도 100년 정도 앞서며 훨씬 정교하고 그 양도 많다. 후대 서유구(1764~1845) 등의 실학자가 대부분 외국자료를 인용했던 바와 달리 이재난고에는 인용 기록과 더불어 당시 상황까지 파악해 기록했다



이재난고

는 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사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윤종기(輪鐘記)'에서는 자신이 관찰한 자명종(自鳴鐘)을 상세히 서술하고 작동원리를 방대한 도표로 기록하여 최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흥대용의 혼천시계를 복원할 때 '이재난고'에 담긴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재난고'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은 고창군에서 2023년 4월 신청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서류검토, 서류심사, 현장조사, 예비심사, 의견청취, 종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됐다.

'이재난고'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

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의 유물 보존관련 지원과 순회 전시 및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등을 통해 홍보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을 통해 조선의 타임캡슐로 인정받는 '이재난고'가 과학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알게 됐다"며 "그동안 '이재난고'의 학술적 가치 규명과 보존·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술대회와 번역사업을 지원해 왔고, 특히 최근 기록화사업, 디지털 이미지 구축사업 등을 통해 올해 문화재청에 보물 승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 29일 방송인 허안나 이야기 손님 출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최승현(전 KBS 아나운서)의 다담지기로 개최한다.



2007년 MBC 16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후, 2009년 KBS 24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합격해 개그콘서트의 '10년 후'와 '버티고' 등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며 겪은 후일담을 나누는 자리로 준비된다.

우리 음악 즐기기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출연해 판소리 수궁가와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을 느낄 수 있는 기악중주 등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팝프렌즈 예술상' 수상자 선정

공연분야 유수영·시각분야 김성수·문학분야 이종근·기획분야 이재원

'2023 이팝프렌즈 예술상'의 수상자가 확정됐다. 23일 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이팝프렌즈 예술상은 수상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성, 작품성과 지역 기여도 중심의 심사를 거쳐 예술인상 3명, 기획자상 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술인상에는 유수영(공연), 김성수(시각), 이종근(문학)씨가, 기획자상에는 이재원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공연분야 수상자 유수영씨는 전라북도 어린이교향악단, 전주예술고등학교 지휘자를 역임했다. 수준 높은 클래식 문화를 보급해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클나무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청소년오케스트라, 전주 하나임 오케스트라, 부안예술회관 아리울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문화예술 매니아 자vern 확대에 이바지했다.

다음으로, 시각분야 수상자 김성수씨는 2009년 데뷔 이래 15년차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인전을 18회 개최하고 200여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표경력으로는 제37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포스코 미술관 선정작가, 제18회 하정음 청년작가초대전 선정작가 등이 있다.

이어, 1994년 문예연구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수필가로 등단한 문학부문 수상자 이종근씨는 현재까지 '우리 동네 꽃담', '이 땅의 다리 산책' 등 51권의 인문학 저서를 발간했다. 2010년 제1회 대한민국 신화창조 스토리 공모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다큐멘터리 작가로써도 활동한 이종근씨는 현재까지 관훈클럽, 한국언론재단, 한국학 호남진흥원 등 출판 대상에 10회 선정된 이력이 있다.

끝으로 기획분야 수상자 이재원씨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사업을 기획하며 기후위기, 문명정환, 생명사상을 키워드로 관찰과 연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탁월한 문화예술 기획력으로 지역 문화예술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함께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 문화예술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을 이어준 후원인상에는 (유)국민종합주택관리(대표이사 서철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방윤혁), (주)카툰에이치(대표이사 정진호), 한국드림문화재단 염문숙 이사장이 우범기 전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7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임명진 명예교수, 목정문화상 문화부문 수상

향토문화 진흥 공헌 문화예술인으로 평가

전북대학교 임명진 명예교수(국어국문학과)가 제31회 목정문화상 문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최근 목정문화재단은 목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임 명예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상은 도민의 문화적 삶과 문화 육구 총족을 위해 고 목정 김광수 선생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목정문화재단이 제정한 상이

다. 이는 도내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공헌한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를 찾아 시상하는 상이다.

목정문화상은 지난 1993년부터 매년 미술, 문학, 음악 등 3개 부문에 걸쳐 현재까지 총 90명에게 창작지원금을 수여했다.

올해 미술 부문에서는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았으며, 문학 부문에서는 임 명예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 명예교수는 장수 출생으로 전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전북대 대학

원 국어국문학과 석사·박사 과정을 마쳤다. 198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으로 등단했으며, 전북대학교 재직시 교단에서는 주로 문학평론, 한국현대문학사, 현대소설론 등을 강의했다.

현대문학이론학회 회장,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전북작가회의 회장, 한국언어문화학회, 전북민예총 회장,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상임의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문학평론과 칼럼, 에세이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24일 오후 4시 전주 더메이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예술회관, 우수작 초청공연 '뮤지컬앤더넘버시리즈 온스테이지' 개최

정읍시예술회관은 오는 12월 6일 오후 7시 우수작 초청공연 '뮤지컬앤더넘버시리즈 온스테이지' 공연을 개최한다.

이 공연은 뮤지컬 유망 넘버를 단 하나의 공연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관록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뮤지컬배우 이지훈, 탄탄한 실력과 재치 있는 입담을 겸비한 믿고 보는 뮤지컬배우 손준호, 민중 엔터테이너 뮤지컬 DNA 홍지민과 멜로즈(이상은, 이가연, 한아름)가 출

연한다.

이와 함께 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는 유원석의 스테이지 미술공연, 뮤지컬 전문 11인조 윤정노 라이브 밴드와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공연이 이어진다.

관람료는 1만 5000원이며, 정읍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50% 할인된다. 관람권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티켓링크에서 1인당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야

전주매일 캠페인